

26-07(통권 1008호) 2026.04.30

경제주평



미-이란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

(2026년 수정 경제 전망)

- 2026년 경제성장률 2.7%, 0.8%p 상향 조정

목 차

- 미-이란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 (2026년 수정 경제 전망)
- 2026년 경제성장률 2.7%, 0.8%p 상향 조정

Executive Summary	i
1. 대외 경제 환경 점검	1
2.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과 경기 추세 예측	6
3. 한국 경제 전망	11
4. 시사점	2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본부 : 주 원 연구본부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경제연구실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이예람 선임연구원 (2072-6240, yr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미-이란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 (2026년 수정 경제 전망)
- 2026년 경제성장률 2.7%, 0.8%p 상향 조정

■ 대외 경제 환경 점검

① 세계 경제 전망

미-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교역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세계 경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석유 수급의 불확실성 등으로 '25년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국제교역 환경은 이미 미국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의 훼손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AI를 중심으로 하는 IT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교역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경제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에너지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로존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미-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미 무역 갈등 및 조기 선적 부작용 등에 따르는 외수 경기 부진과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및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이 예상된다. 기타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우 교역 의존성이 높아 세계 경제 성장 위축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4월 전망 통계에 따르면 미-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 가능성이 전망된다. 최근 미국은 관세 인상과 더불어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도 물가 안정 목표를 넘는 물가 상승률에 직면할 경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유인이 존재한다.

환율은 미국 경제 펀더멘털의 상대적인 강건성에도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강달러의 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의 예상치 상회 등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의 상승도 전망된

다. 달러화는 美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적자 확대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현재의 강달러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유로화·엔화·위안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변동성 확대의 우려가 상존한다. 한편, 원화도 '26년 국내 성장률 반등과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효과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국제 유가는 '25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시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현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유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 다만,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에너지 산업 인프라의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행 자유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26년 국제 유가는 '25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과 경기 추세 예측

①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

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준 시나리오상 여름 이전 봉쇄 해제로 고유가-인플레이션 이슈의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특징이 예측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예상을 넘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 급증, 공급망 고장에 따른 산업 활동 섰다운 우려도 존재한다.

② 2차 관세 전쟁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 대외 정책 발현이 우려된다. 2027년 미국 정치 상황은 선거 결과에 따른 탄핵 요건(하원 과반 탄핵 소추 / 상원 3분의 2 이상 탄핵 결정)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미-이란 전쟁 휴전 또는 종전 이후 미국 내 지지율 회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전쟁 전개 시 글로벌 교역 질서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③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올해 하반기 경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중장기 추세로는 AI 시장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지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④ 추경 효과

2분기 추경 효과가 집중되면서 경제 심리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추경 효과가 2분기에 국한되면서 소비의 리질리언스를 크게 강화시키지 못하면서 3분기 역기저효과로 경제 지표의 악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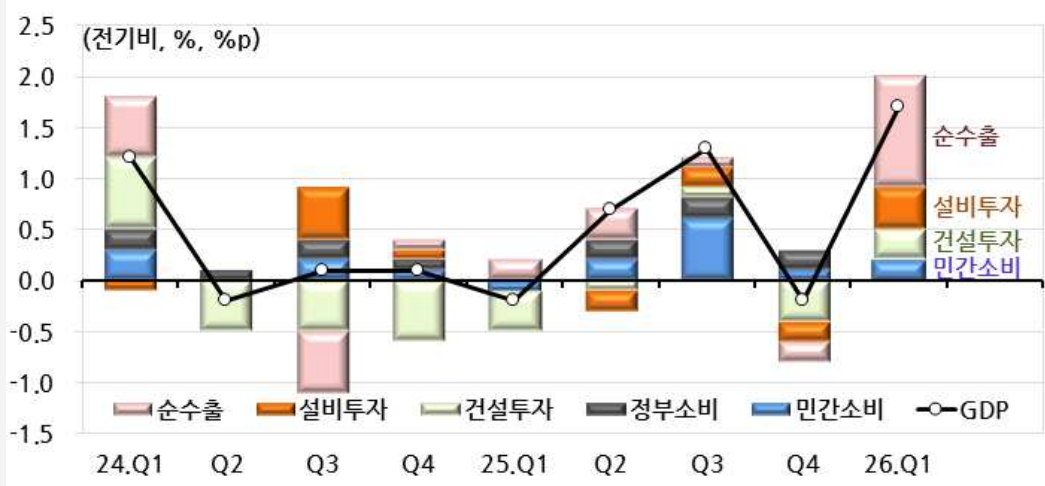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케빈 위시 의장 취임 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단,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어도 재정 확대 등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예상되면서 동결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존한다.

② 최근 경기 판단과 경기 추세 예측

미-이란 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황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7%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미-이란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추경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가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향후 경기 추세에 대해서는 현 경기 국면이 저점 부근으로 대외 리스크가 증폭되지만 **않는다면 향후 경기 추세는 우상향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는 '25년 중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 트렌드로 경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진행 경로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5년 하반기의 관세 전쟁 충격, '26년 상반기의 미-이란 전쟁 등의 메가 리스크가 발현되면서 경기 예측 경로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핵심은 현재 경기 국면이 경기 저점 또는 경기 상승을 도모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미-이란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경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수요 부문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 한국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의 배경

지난 전망 시점('25년 9월 전망)에서 고려되지 못한 ① 미-이란 전쟁, ② 추경 대응, ③ 수출 경기 호황, ④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GDP 실적 등의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등장하면서 경제 전망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이란 전쟁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를 비롯한 모든 시장 상대가격의 급변을 유발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추경 대응이 예상보다 빠르고 대규모로 편성되면서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3일 발표된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서 내수 부문이 예상외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간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 전망의 전제

이번 수정 경제 전망은 하반기에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방향성이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 최대 리스크 요인인 미-이란 전쟁은 2분기 중 피크 아웃(협상의 타결) 되면서 올해 여름 전후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화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한편,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하반기까지는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시현하는 것을 예상한다. 나아가 한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 급진적이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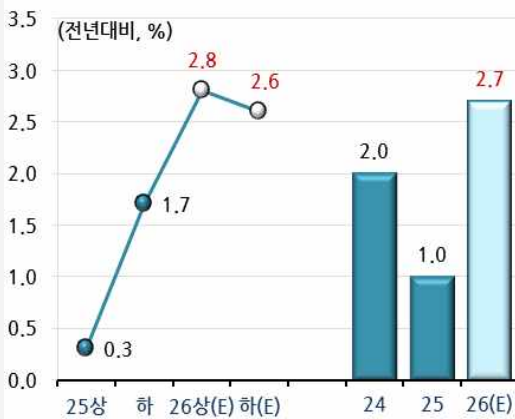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1.0%	⇒	2.7%
	(2025)		(2026)

'26년 경제성장률은 '25년 1.0%보다 크게 높아진 2.7%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지난 전망치 1.9%('25년 9월 전망)보다 0.8%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수출이 강한 경기 확장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내수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대부분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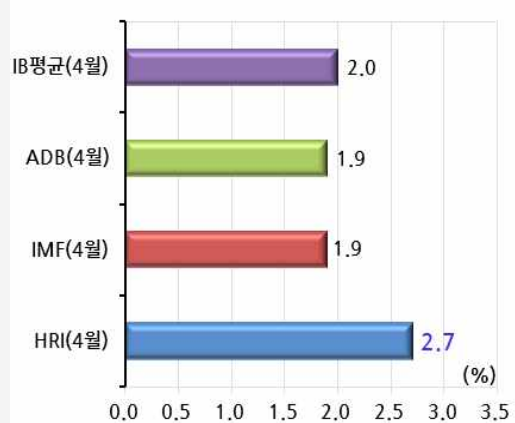
수 부문에서는 고유가 충격에 따른 심리 위축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이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일정 부분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 미국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2차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내·외수 전반에 경기 확장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 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 2026년 성장률 전망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1.3%	⇨	2.4%
	(2025)		(2026)

민간소비는 일시적으로 2분기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추경 효과가 이를 방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약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6년 하반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우려되는 하방 리스크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실질구매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26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5년의 1.3%에서 개선된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민간소비의 추세는 전년대비 기준으로는 저효과의 영향으로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으나, 실제 체감되는 전기비 추세로는 하반기 소비 시장 여건이 상반기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증가율	2.0%	⇨	3.4%
	(2025)		(2026)

수출 호황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 동기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의 상방 리스크 요인은 시장 수요의 확대, 특히 AI 등 ICT 산업의 반도체 수요 급증이 투자 확대의 가장 큰 동기로 판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산업에서 계획된 투자가 유보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 즉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도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투자 여력의 해외 유출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높지 않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6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5년 2.0%보다 높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투자증가율	△9.8%	⇒	0.2%
	(2025)		(2026)

건설투자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력이 작용하면서 제로 성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기간 침체를 지속한 건설투자의 '21년~'25년까지 역성장의 추세와 '25년의 급격한 투자 침체의 영향에 따른 반등효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지연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비 급등 등이 건설투자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5년 하반기에 들어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반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물가에 따른 한은 금리 사이클 전환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투자 침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3.8%	⇒	24.7%
	(2025)		(2026)

수출증가율은 '25년 3.8%에서 '26년 24.7%로 급증할 전망이다. '26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출 급증, 고유가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0%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의 미·이란 전쟁의 예상치 못한 확대(擴戰), 2차 관세 전쟁 등의 교역 시장 불확실성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수출 경기 하방 리스크도 존재한다.

수입증가율	0.0%	⇒	15.9%
	(2025)		(2026)

수입증가율은 '25년 0.0%에서 '26년 15.9%로 높아질 전망이다. '26년 연간 전체로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중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추세상으로 하반기 수입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역수지	774억 달러	⇨	1,522억 달러
	(2025)		(2026)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25년 774억 달러에서 '26년 1,5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연간 최대치인 '17년 952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한국 경제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26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900억 달러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1,231억 달러	⇨	1,897억 달러
	(2025)		(2026)

경상수지는 '25년 1,231억 달러에서 '26년 1,89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5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데 이어 '26년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6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1,18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700억 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증가는 상품수지(무역수지) 급증이 주된 원인이며, 원화 약세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감소 등 서비스수지 개선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1%	⇨	2.5%
	(2025)		(2026)

고유가 충격에 따른 공급측 물가 급등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서비스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미-이란 전쟁의 영향에 따른 고유가와 1,400원 중반대의 환율 수준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누적된 금리 인하 효과, 추정 지출 등으로 시장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만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에는 석유류 제품의 가격 급등이 공업 제품 전반의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서비스 요금 인상, 임금 인상 등의 인플레이션 연쇄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년 2.1%에서 '26년에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상회하는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반기 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2.4%, 하반기에는 이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에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지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매파적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업률	2.8%	⇨	2.9%
	(2025)		(2026)

실업률은 '25년 2.8%에서 '26년 2.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상반기 실업률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2.6%가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과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고용 시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취업자수증감	19만명	⇨	18만명
	(2025)		(2026)

신규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는 '25년 19만 명, '26년 18만 명으로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복지 서비스업 수요 증가 등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력이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산업 경기 양극화, 물가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한국 경제는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이란 전쟁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중장기 안정적 경제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잦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부상으로 인한 '위기의 상시화 시대',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제 심리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 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셋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요인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압력 상승에 대응해서는 미시적인 물가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전후(戰後) '통상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안정된 공급망 구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단기 고용 창출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모두 도움이 되는 투자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K-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6년 한국 경제 전망표(2026년 4월) >

구 분		2024	2025			2026(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0	0.3	1.7	1.0	2.8	2.6	2.7
	민간소비 (%)	1.1	0.7	1.9	1.3	2.5	2.3	2.4
	건설투자 (%)	△3.3	△12.2	△7.3	△9.8	△0.5	0.8	0.2
	설비투자 (%)	1.7	4.5	△0.4	2.0	3.1	3.7	3.4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1,000	479	752	1,231	1,186	711	1,897
	무역수지 (억 달러)	518	274	500	774	976	546	1,522
	수출증가율 (%)	8.1	0.0	7.4	3.8	38.5	12.4	24.7
	수입증가율 (%)	△1.7	△1.5	1.5	0.0	19.1	12.9	15.9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2.1	2.2	2.1	2.4	2.6	2.5
실업률 (%)		2.8	3.1	2.5	2.8	3.2	2.6	2.9
취업자수 증감 (만 명)		16	18	21	19	17	19	18

1. 대외 경제 환경 점검

①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미-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교역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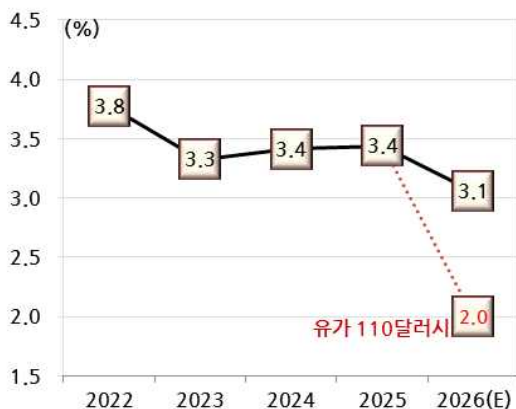
- '26년 세계 경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석유 수급의 불확실성 등으로 '25년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

- IMF 4월 전망에 따르면 '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25년의 3.4%에서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국제 유가 배럴당 110달러 시 오일 쇼크 국면에 세계 경제가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0%로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함

- '26년 국제교역 환경은 이미 미국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의 훼손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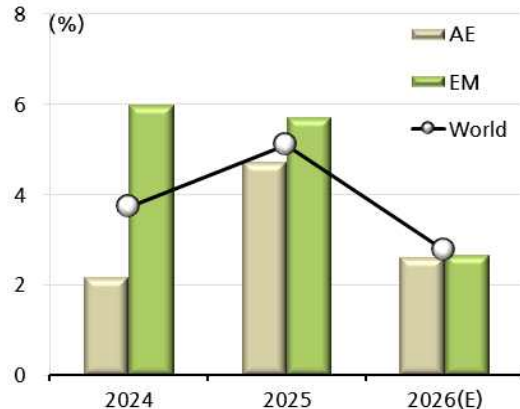
- IMF 4월 전망 통계 기준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25년 5.1%에서 '26년 2.8%로 하락할 전망이다
- 다만, 최근 AI를 중심으로 하는 IT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교역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함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6).

<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6).

○ (선진국) 미국 경제는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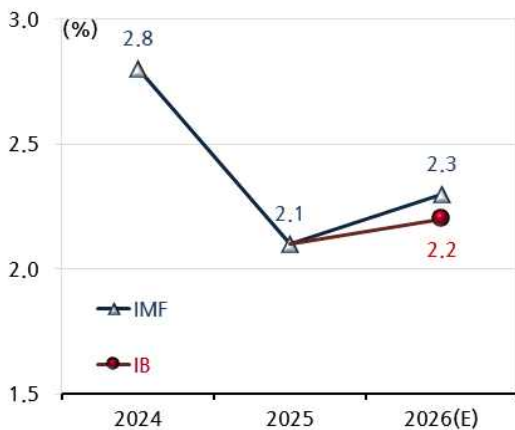
- (미국) 트럼프 정책 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현재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IMF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에 대하여 '26년 경제성장률을 '25년 2.1%보다 소폭 개선된 2.3%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IB 전망치도 IMF보다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지만 비슷한 흐름 '26년 2.2%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에너지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유로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미-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1% 내외의 성장률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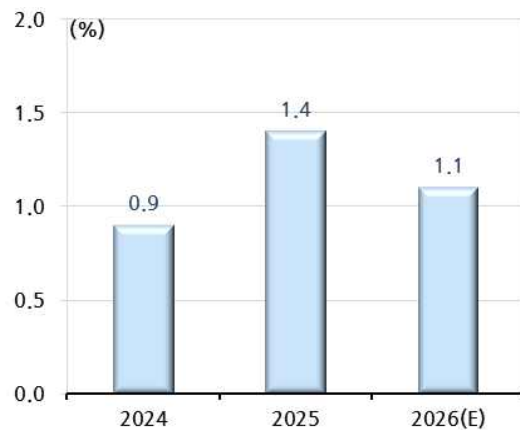
- '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5년 수준 1.4%에서 크게 하락한 1.1%에 그칠 전망이며, 그나마 역내 주요 경제권 중 독일 '25년 0.2% → '26년 0.8%의 회복세가 주목됨
-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ECB가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6), Bloomberg¹⁾.

<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6).

1) IB는 투자은행 평균 전망치(2026.4).

- (신흥국 및 개도국) 이번 미-이란 전쟁의 피해는 선진국보다 신흥국 및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대미 무역 갈등 및 조기 선적 부작용 등에 따르는 외수 경기 부진과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및 디플레이션 deflation 압력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이 예상됨
 - '2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25년 수준 5.0%에서 다소 둔화된 4.4%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무역 갈등 완화 및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성장률이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함
- (기타 신흥국)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은 세계 경제 및 국제 교역의 위축으로 대부분 지역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IMF 4월 전망 통계에 따르면 미-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2023	2024	2025	2026(E)
세계 경제성장률	3.3	3.4	3.4	3.1
선진국	1.7	1.8	1.9	1.8
미 국	2.9	2.8	2.1	2.3
유로지역	0.4	0.9	1.4	1.1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4	4.5	4.4	3.9
아시아신흥국	5.6	5.5	5.5	4.9
중 국	5.4	5.0	5.0	4.4
인 도	7.2	7.1	7.6	6.5
ASEAN-5	4.1	4.8	4.5	4.1
중남미	2.3	2.4	2.4	2.3
중동 및 중앙아시아	2.6	2.8	3.6	1.9
동유럽	3.6	3.8	2.0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8	4.2	4.5	4.3
세계 교역량증가율	0.9	3.7	5.1	2.8

자료: IMF WEO(April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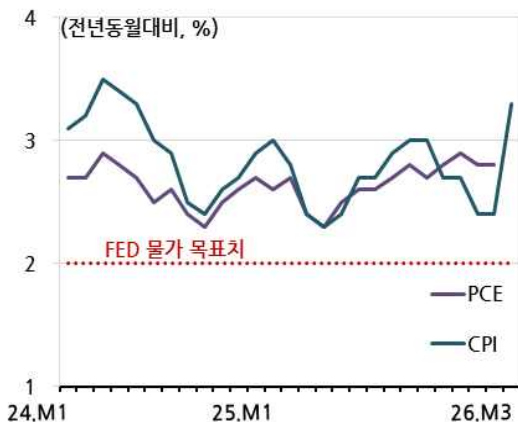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 (금리)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 가능성이 전망

- 최근 미국은 관세 인상과 더불어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도 물가 안정 목표를 넘는 물가 상승률에 직면할 경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유인이 존재

- 미 FED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금리 인상의 동기가 존재하나, 최근 선임된 새 연준의장 캐빈 워시이 어느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동성 관리 기조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상존함
- ECB는 유럽 지역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강한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현 금리 수준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BOK의 경우 국내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경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금리 인상 시 추정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FED, BLS.

< IB의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

	2025	2026(E)			
	Q4	Q1	Q2	Q3	Q4
FED (%)	4.00	3.75	3.75	3.50	3.25
BOJ (%)	0.75	0.75	1.00	1.00	1.25
ECB (%)	2.15	2.15	2.15	2.15	2.40
BOK (%)	2.50	2.50	2.50	2.50	2.50

자료: Bloomberg.

○ (환율 및 유가)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소폭의 환율 하락 및 국제 유가의 하향 가능성이 유력

- (환율) 미국 경제 펀더멘털의 상대적인 강건성에도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강달러의 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의 예상치 상회 등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의 상승도 전망

- 달러화는 美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적자 확대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현재의 강달러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추세로 인해 유로화·엔화·위안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변동성 확대의 우려가 상존함
- 원화도 '26년 국내 성장률 반등과 세계국채지수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효과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국제 유가) '26년 국제 유가는 '25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시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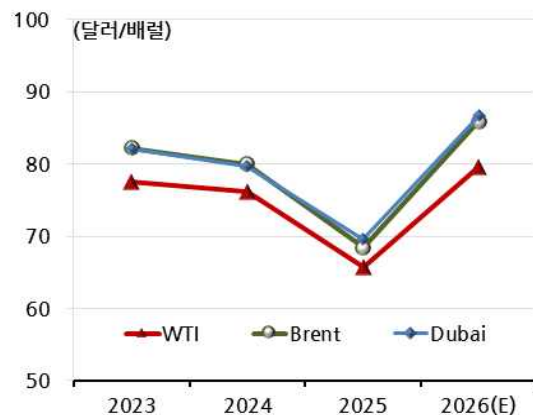
- 미-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현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유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가 예상됨
- 다만,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에너지 산업 인프라의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행 자유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26년 국제 유가는 '25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IB 주요 환율 전망 >

	2025	2026(E)			
	Q4	Q1	Q2	Q3	Q4
달러/유로	1.17	1.16	1.17	1.19	1.19
엔/달러	157	159	157	155	153
위안/달러	6.99	6.89	6.86	6.83	6.80
원/달러	1,445	1,516	1,478	1,461	1,450

자료: Bloomberg.

< 국제 유가 전망 >



자료: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2.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과 경기 추세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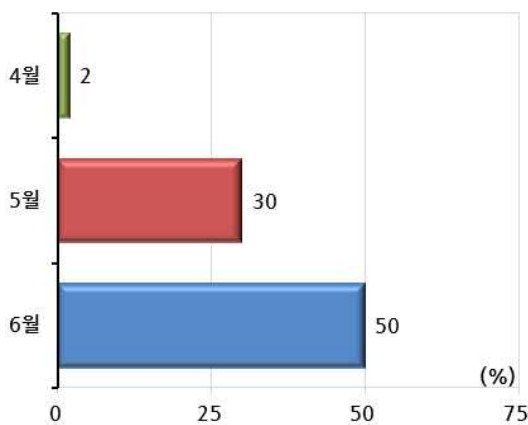
(1)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

- 향후 예상되는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호르무즈 해협 봉쇄, ② 2차 관세 전쟁, ③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④ 추정 효과, 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시작 등이 전망

① 호르무즈 해협 봉쇄

- 기준 시나리오상 여름 이전 봉쇄 해제로 고유가-인플레이션 이슈의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유가가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단,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특징이 예측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예상을 넘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 급증, 공급망 고장에 따른 산업 활동 섰다운 우려도 존재함

< 폴리마켓의 미국과 이란의 영구 평화 협정 체결 시기 확률 >



자료: Polymarket.
주: 4월 27일 기준.

< 현대경제연구원의 미-이란 전쟁 시나리오 전망 >

시나리오	두바이 유가	전 제
긍정적 시나리오	70달러 미만	전쟁의 단기 종결 단기 협상 타결
기준 시나리오	80달러 내외	쌍방 간헐적 공습 지속 1개월 내외 호르무즈 봉쇄
비관적 시나리오	100달러 내외	공습 장기화 수개월 호르무즈 봉쇄
오일쇼크 시나리오	150달러 이상	지상군 투입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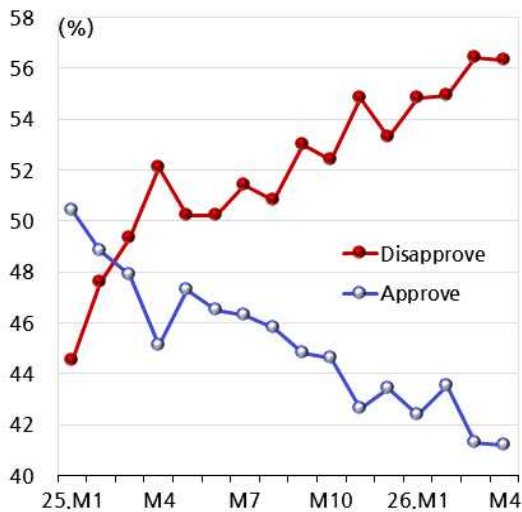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26)²⁾.

2) 현대경제연구원,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6-01, 2026.03.03.

② 2차 관세 전쟁

-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 대외 정책 발현이 우려됨
- 2027년 이후 미국의 정치 상황은 선거 결과에 따른 탄핵 요건 하원 과반 탄핵 소추 / 상원 3분의 2 이상 탄핵 결정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함
- 다만, 미국 상원의원 선거는 전체 의석수 100석 중 6년 임기가 만료되는 33석과 도중 공석이 된 일부 의석수에 대해서만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상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인 67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란 전쟁 휴전 또는 종전 이후 미국 내 지지율 회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전쟁 전개 시 글로벌 교역 질서의 큰 혼란이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 업무수행 긍정/부정 비율 >



자료: RealClearPolitics.
주: 각 월말 기준.

< 미국 대통령 탄핵 요건 및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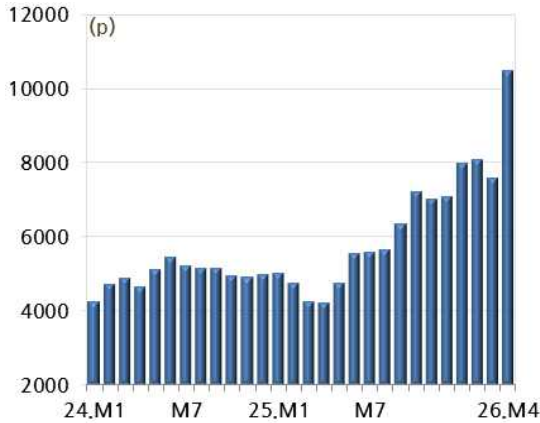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Grounds for impeach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역(Treason), 수뢰(Bribery),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
Impeachment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핵소추안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조사 하원 과반수 찬성시 소추
Trial (Sen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사- 연방대법원장, 배심원- 상원의원, 검사- 탄핵소추 하원의원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67명) 찬성시 유죄

자료: BBC.

③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 '26년 하반기 경 시장 내 공급자 증가 또는 IT 투자 정체 등으로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 다만, 중장기 추세로는 AI 시장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지속 가능성도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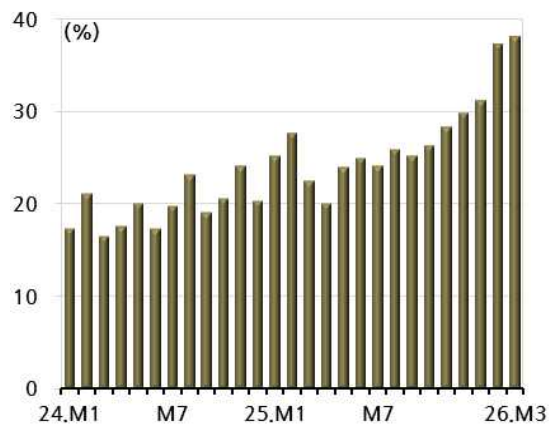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이 >



자료: Bloomberg.

주: 해당월 말일 기준, '26년 4월은 27일 기준.

< 반도체³⁾수출/총수출 비중 추이 >



자료: 산업부.

4 추경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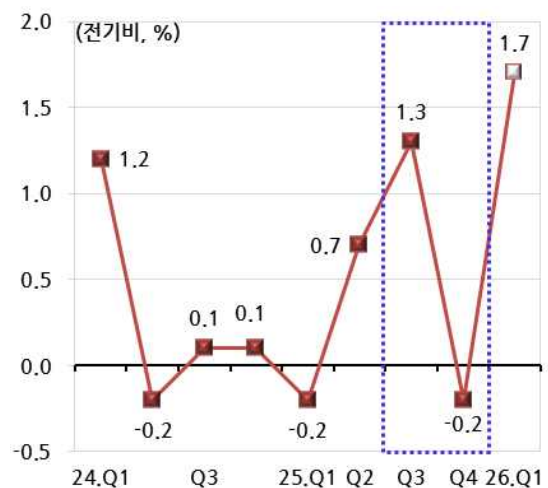
- 2분기 추경 효과가 집중되면서 경제 심리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25년 하반기 사례와 같이, 이번 추경 효과가 2분기에 국한되면서 소비의 리질리언스를 크게 강화시키지 못할 경우 3분기에 역기저효과로 경제 지표의 악화 가능성도 존재함

< 추경 부문별 내역(조 원) >

합 계	26.2
① 고유가 부담 완화	10.4
전국민 부담 경감	5.2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4
② 민생 안정	2.8
취약계층 지원	0.8
청년 창업·일자리	1.9
고물가 대응	0.1
③ 산업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3.0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1.0
공급망 안정화	0.9
④ 지방재정 보강 등	9.7
⑤ 국채 상환	1.0

자료: 기획예산처.

< 분기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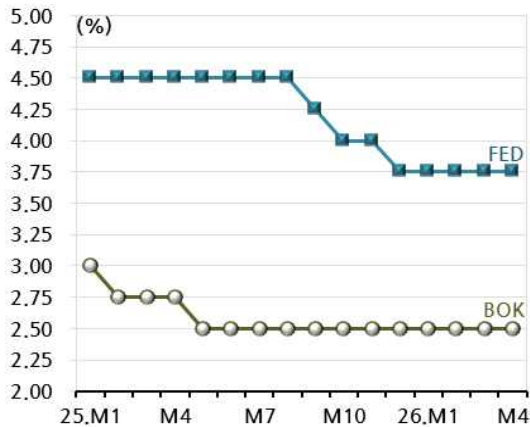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MTI 831 기준.

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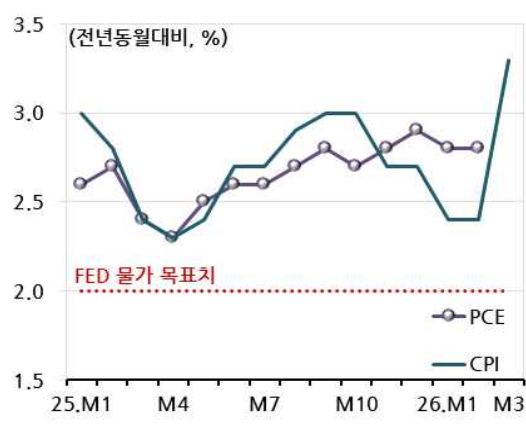
-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캐빈 워시 Kevin Warsh 의장 취임 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됨
- 단,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어도 재정 확대 등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되면서 동결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존함

< FED 및 BOK 정책금리 추이 >



자료: FED, BOK.

< 미국 CPI 및 PCEPI 상승률 추이 >



자료: BLS, BEA.

(2) 최근 경기 판단과 경기 추세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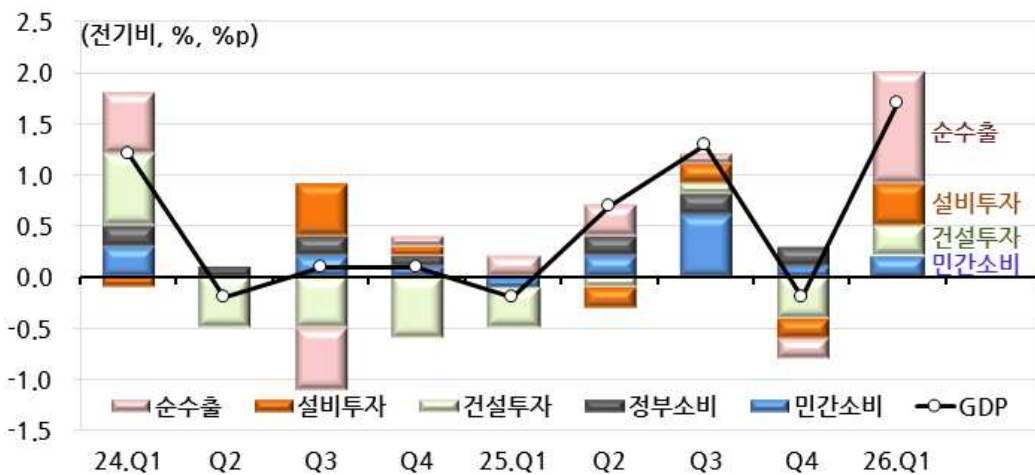
○ 최근 경기 판단

- 미-이란 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황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이란 전쟁의 영향권인 3월이 1분기에 포함되었으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7%를 기록함
 - 이러한 고성장은 수출 호황이 지속되면서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1%p에 달하였으며, 수출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기여도도 0.4%p를 기록함
 - 한편, 민간소비는 높은 GDP 비중에도 불구하고 0.2%p에 그침
- 다만, 미-이란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추경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가 이를 어

는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

- 3월은 미-이란 전쟁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4월 이후 2분기 경제 성장에 본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약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경기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것으로 예상됨

< 수요 부문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추세 예측

- 현 경기 국면은 저점 부근으로 대외 리스크가 증폭되지만 **않는다면** 향후 경기 추세는 **우상향**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전망
 - 국내 경제는 '25년 중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 트렌드로 경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진행 경로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25년 하반기의 관세 전쟁 충격, '26년 상반기의 미-이란 전쟁 등의 메가 리스크가 발현되면서 경기 예측 경로가 크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음
 - 핵심은 현재 경기 국면이 경기 저점 또는 경기 상승을 도모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미-이란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경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3. 한국 경제 전망

(1) 수정 경제 전망의 배경과 전제

○ 수정 경제 전망의 배경

- 지난 전망 시점 '25년 9월 전망에서 고려되지 못한 ① 미-이란 전쟁, ② 추경 대응, ③ 수출 경기 호황, ④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GDP 실적 등의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등장하면서 경제 전망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
 - ① **미-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외 물가를 비롯한 모든 시장 상대가격의 급변을 유발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함
 - ② **추경 대응**: 정부의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추경 대응이 예상보다 빠르고 대규모로 편성되면서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역할을 함
 - ③ **수출 경기 호황**: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모습을 보임
 - ④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GDP 실적**: 지난 4월 23일 발표된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서 내수 부문이 예상외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함

○ 수정 경제 전망의 전제

- 하반기에는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방향성이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함을 전제
 - 미-이란 전쟁이 2분기 중 피크 아웃 협상의 타결 되면서 올해 여름 전후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화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함
 -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하반기까지는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시현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한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 급진적이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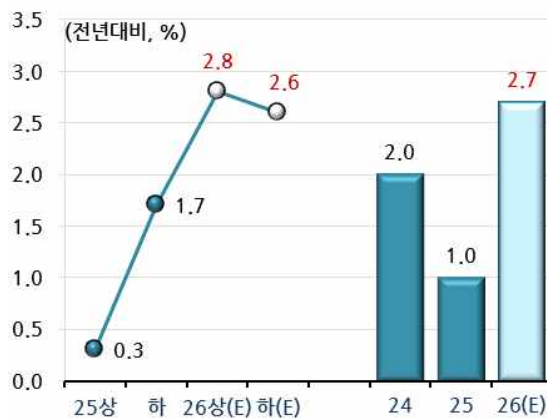
(2)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1.0%	⇨	2.7%
	(2025)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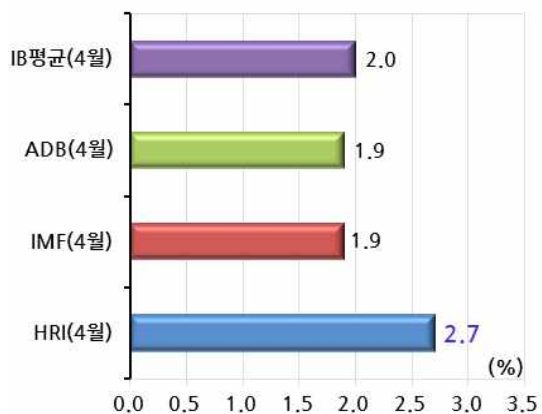
- '26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강한 경기 확장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내수 회복을 견인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대부분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내수 부문에서는 고유가 충격에 따른 심리 위축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이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일정 부분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 미국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2차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내·외수 전반에 경기 확장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 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26년 경제성장률은 '25년 1.0%보다 크게 높아진 2.7%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지난 전망치 1.9% '25년 9월 전망보다 0.8%p 상향 조정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의 2026년 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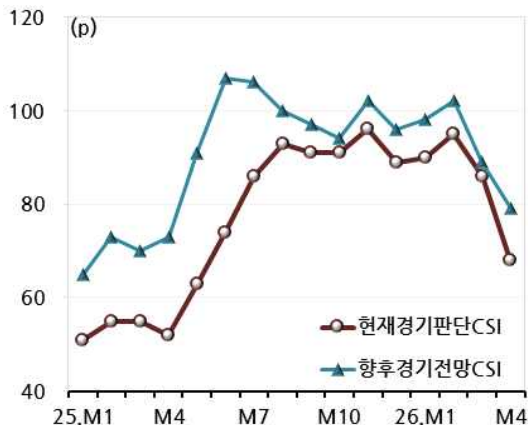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1.3%	⇨	2.4%
	(2025)		(2026)

- 일시적으로 2분기 가계의 소비심리는 침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추경 효과가 소비 침체를 방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약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26년 상반기 중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추경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영향이 이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6년 하반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우려되는 하방 리스크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실질구매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26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5년 1.3%에서 크게 개선된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6년 민간소비의 추세는 전년대비 기준으로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으나, 실제 체감되는 전기비 추세로는 하반기 소비 시장 여건이 상반기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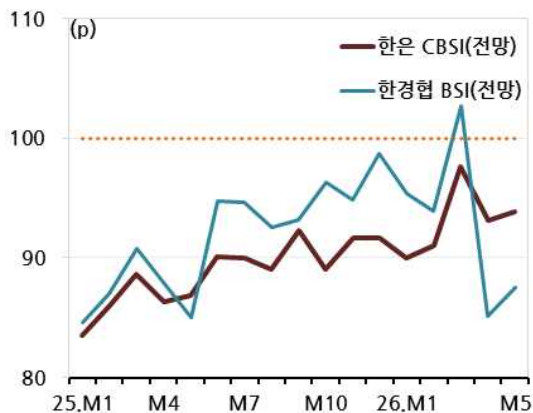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설비투자증가율	2.0%	⇨	3.4%
	(2025)		(2026)

- 수출 호황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 동기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의 상방 리스크 요인은 시장 수요의 확대, 특히 AI 등 ICT 산업의 반도체 수요 급증이 투자 확대의 가장 큰 동기로 판단됨
 - 다만, 일시적으로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산업에서 계획된 투자가 유보될 수 있음
 -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 즉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도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투자 여력의 해외 유출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높지 않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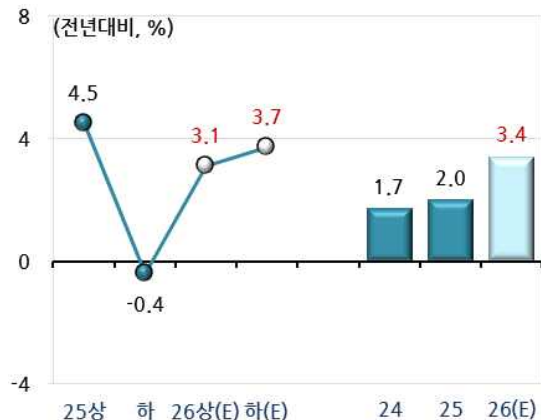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6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5년의 2.0%보다 높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증가율은 반도체 및 IT 부문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3.1%가 예상됨
 -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이보다 다소 높아진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3.8%	⇨	24.7%
	(2025)		(2026)

- 수출증가율은 '25년 3.8%에서 '26년 24.7%로 급증할 전망

- '26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출 급증, 고유가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0%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최근의 미-이란 전쟁의 예상치 못한 확전 擴戰, 2차 관세 전쟁 등의 교역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수출 경기 하방 리스크도 존재함

수입증가율	0.0%	⇨	15.9%
	(2025)		(2026)

- 수입증가율은 '25년 0.0%에서 '26년 15.9%로 높아질 전망

- '26년 고유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내외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추세상으로는 하반기 수입증가율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수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 수입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무역수지 774억 달러 ⇨ 1,522억 달러
 (2025) (2026)

-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는 '25년 774억 달러에서 '26년 1,5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
 - '26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900억 달러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1,231억 달러 ⇨ 1,897억 달러
 (2025) (2026)

- 경상수지는 '25년 1,231억 달러에서 '26년 1,89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
 - '26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1,18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711억 달러가 예상됨
 -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증가는 상품수지 무역수지 급증이 주된 원인이며, 원화 약세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감소 등 서비스수지 개선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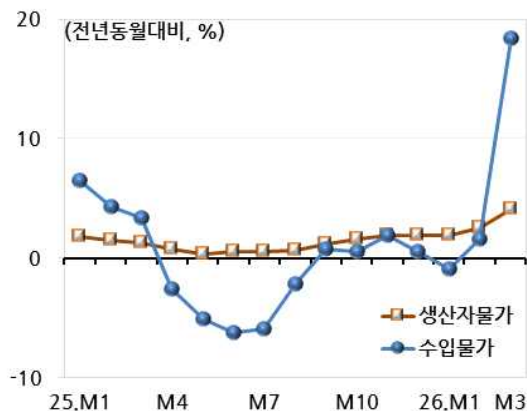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25)	⇨	2.5% (2026)
-----------------	-----------------------	---	-----------------------

- 고유가 충격에 따른 공급측 물가 급등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서비스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전망
 - 미-이란 전쟁의 영향에 따른 고유가와 1,400원 중반대의 환율 등으로 수입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누적된 금리 인하 효과, 추정 지출 등으로 시장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만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중에는 석유류 제품의 가격 급등이 공업 제품 전반의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서비스 요금 인상, 임금 인상 등의 인플레이션 연쇄효과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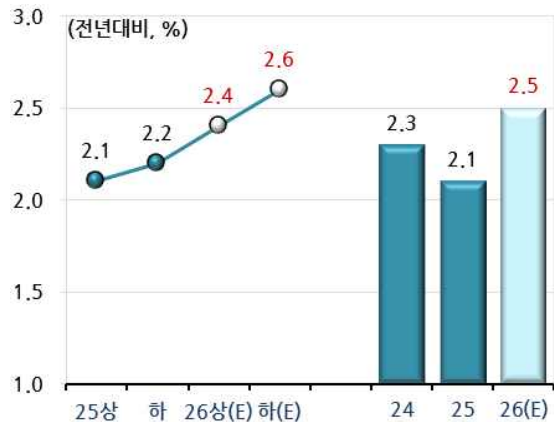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년 2.1%에서 '26년에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2.4%, 하반기에는 이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이 예상됨
 - 따라서 하반기에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지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매파적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수입 및 생산자 물가 증가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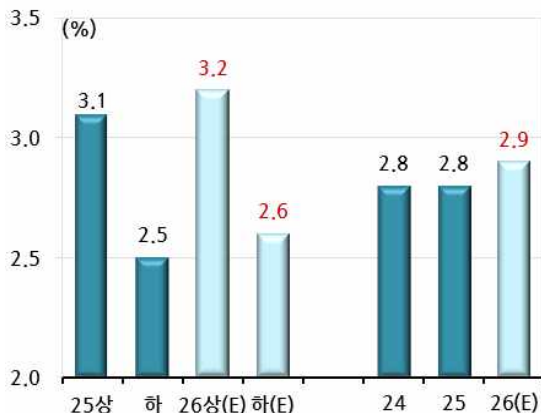
실업률	2.8%	⇒	2.9%
	(2025)		(2026)

- 실업률은 '25년 2.8%에서 '26년 2.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6년 상반기 실업률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2.6%가 예상됨
 -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과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고용 시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임

취업자수증감	19만명	⇒	18만명
	(2025)		(2026)

- 신규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은 '25년 19만 명, '26년 18만 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복지 서비스업 수요 증가 등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력이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단, 산업 경기 양극화, 물가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

< 취업자수 증감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6년 한국 경제 전망표(2026년 4월) >

구 분		2024	2025			2026(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0	0.3	1.7	1.0	2.8	2.6	2.7
	민간소비 (%)	1.1	0.7	1.9	1.3	2.5	2.3	2.4
	건설투자 (%)	△3.3	△12.2	△7.3	△9.8	△0.5	0.8	0.2
	설비투자 (%)	1.7	4.5	△0.4	2.0	3.1	3.7	3.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000	479	752	1,231	1,186	711	1,897
	무역수지 (억 달러)	518	274	500	774	976	546	1,522
	수출증가율 (%)	8.1	0.0	7.4	3.8	38.5	12.4	24.7
	수입증가율 (%)	△1.7	△1.5	1.5	0.0	19.1	12.9	15.9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2.1	2.2	2.1	2.4	2.6	2.5
실업률 (%)		2.8	3.1	2.5	2.8	3.2	2.6	2.9
취업자수 증감 (만 명)		16	18	21	19	17	19	18

4. 시사점

첫째, 잦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부상으로 인한 ‘위기의 상시화 시대’,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제 심리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 원유 및 유화 제품 공급 부족 우려감 확산과 관련하여, 협단체 및 주력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 내 업 스트림 upstream과 다운 스트림 downstream 상 단계별 제품 과부족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석유화학 산업의 전방 산업에 대하여 공급망 및 부가가치 사슬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불안정 시 적극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경제는 곧 심리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최근 경제 주체들의 심리 지표 악화 현상에 대응하여, 정책 당국이 여러 경제 현안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어야 할 것임
- 나아가, 눈에 보이는 현안을 넘어서 향후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할 잠재적 불안 요인이 무엇인지를 미리 살피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둘째,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 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내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시급한 시장 활력 보강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집행이 요구됨

- 특히, 지금과 같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안 GDP의 절반에 달하는 민간 소비 시장의 활력을 크게 높여 경기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나아가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중앙은행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 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미세 조정 fine tuning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셋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요인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압력’ 상승에 대응해서는 미시적인 물가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 시장 구조의 왜곡 가능성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석유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의 시작점인 유류에 대하여 최고가격제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민체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한 선제적 수입물량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함
- 또한, 독과점 시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최근 공정위 활동 사례에서와 같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됨

넷째, 전후 戰後 ‘통상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안정된 공급망 구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미-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로 인해 오일 쇼크의 부정적 영향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금융 시장에서 동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축소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미-이란 전쟁 이후의 국내외 경제 방향성을 가늠하고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전후 미국 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2차 관세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미국 통상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 협·단체들의 움직임에서 정책 변화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선제적 경고를 해주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문제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임
- 나아가 크게는 한·미 간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교역 질서의 또 다른 재편 가능성에 대응해야 할 것임
- 한편,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후 미국의 관심은 미·중 정상 회담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향후 G2의 움직임에 의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큰 변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직간접인 교역 경로에 불안 요인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다섯째, 단기 고용 창출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모두 도움이 되는 투자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 최근 기업 투자는 IT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IT 산업의 투자 활력이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비IT 산업은 경기 둔화, 공급 과잉 이슈로 침체되는 모습임
- 전체적으로 시장 규제 완화 노력 지속, 금융·세제상 지원 강화, 기업인의 사기 진작 등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인 투자자 전용 특구를 조성하여 입지 여건, 조세, 외국인 정주 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인 투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형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 나아가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업의 정상화를 위해 SOC 투자의 조기 발주 그리고 건축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됨
- 토목 부문에서 교통, 통신, 철도 등의 전통적인 SOC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도록 AI 인프라 확충, 친환경 도로 건설, 저탄소 배출 물류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의 AX·GX 인프라 확충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건축 부문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투자가 건강한 펀더멘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추진 등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K-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최근의 내수·수출 간 경기 격차는 결국 산업간, 기업간, 소득계층간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수출의 호황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잘 살펴 사회 안전망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고용시장의 후행성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실물경기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 실업급여의 범위와 기간 확대, 재취업 교육의 실효성 확보, 마찰적 실업 방지를 위한 구인·구직 연결성 제고 등의 고용 대책이 필요함 **HRI**

주 원	연구본부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경제연구실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이예람	선임연구원	(2072-6240, yrlee@hri.co.kr)